

강성열 교수의 성경을 여는 열쇠, 창세기

6강 사람의 죄, 하나님의 은혜

1. 처음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3장)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은 참으로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질서 정연했다. 어느 것 하나 비뚤어진 것이 없었다.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 거기에는 쉽게 깨뜨려질 수 없는 질서와 조화가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사이에는 생명을 주고받는 긴밀한 사권의 관계가 있었다. 남자와 여자 사이가 그러했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그러했다. 모든 피조물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까닭에 그 어느 것도 다른 피조물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었고 그를 통해 호흡하고 있었다. 그들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계에 악(惡)의 요소가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악은 간교한 뱀에게서 비롯된 것이었고 맨 처음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죄(罪)라고 부른다. 이 죄는 맨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생명의 사권을 무효화시켰다. 더 나아가서 그 죄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우주 만물의 질서에 큰 상처를 주었다. 그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와 연합(공동체)이 깨뜨려졌고 사람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상호 의존 관계가 깨뜨려졌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사권의 관계가 크게 손상을 입었다.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된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결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부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정하게 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모든 일을 끝내지는 않으신다. 그 심판을 넘어서는 새로운 구원의 은총을 그들에게 베푸심으로써 그들이 부족하나마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다.

창세기 3장은 이처럼 악의 시작과 인간의 범죄 및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심판 후에 있을 새로운 구원 은총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단락이다. 아울러 창세기 3장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떻게 해서 훼손되었는가,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불평등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가, 인간 세상에 왜 고통과 수고가 계속되는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왜 생겨난 것인가 등등의 문제에 해답을 주고 있는 단락이기도 하다.

창세기 3장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도를 염두에 두면서 이 단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맨 먼저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 여자를 유혹한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과정에서 이들 둘 사이에 말이 오고 가는데, 이들 사이의 대화는 5절까지 이어진다. 마침내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준다.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그들은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벗은 몸을 가린다(6-7절).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을 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례대로 심문하신 후에 뱀, 남자, 여자의 순서로 벌을 내리신다(8-19절). 여자의 이름이 남자에 의해 하와라고 칭하여진 후에(19절)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다(20절). 아울러 하나님은 죽음의 벌을 받게 된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끔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한다(22-24절).

2. 처음 살인과 아담의 후손 (4-5장)

처음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뜨려졌고 그다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뜨려졌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스런 관계도 온전하게 남아 있지 못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조화(cosmos)가 무질서와 혼란(chaos)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것들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 있는 살인(殺人) 사건이다.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사랑과 신뢰에 뿌리박고 있던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부부 공동체가 지배와 복종의 흉한 계급 공동체로 일그러지더니 이제는 두 사람 사이에 난 아들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마침내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결말에 도달한 것이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할 형제(롬 12:10) 사이에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원함과 시기심에 희생되었으니 이보다 더 가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사실 가인(유목)이 동생 아벨(농경)을 죽인 일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멀어질 수 있는가를 표본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할 수 있는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걸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최악의 세계에 빠져들어 가고 있음을 그림처럼 보여 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었던 살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일단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죄(罪)의 '확대 재생산'에 휘말려 드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인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의 확대 재생산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분 같아서는 죄를 범한 그들을 다 멸하고 싶을 정도로 진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동생을 죽인 가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도 범죄한 그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다. 이른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벌 받아 쫓겨나는 가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며 그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아벨을 잃었던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낳아 번성하는 복을 누린다.

이상의 내용은 창세기 4장과 5장에 다음과 같이 잘 정리되어 있다. 먼저 4장 1절부터 7절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8절부터 16절은 가인의 살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및 보호의 은총 등을 차례대로 서술하고 있다. 이어 17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소개한다. 그리고 25절과 26절은 아벨에 이어 출생한 셋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5장은 아담에서 셋을 거쳐 노아에 이르는 긴 족보를 소개하고 있다.

3.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무지개 언약 (6-9장)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삶을 누리려는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의 생명을 도적질하는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의 생명을 취한 것이 그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가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하나님께로부터 보호의 표를 받을 수 있었다. 나중에 정착 생활에 들어간 그의 가계(家系)는 인류 문명의 시작과 엇물려 나타나며, 나중에는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으로 귀결된다. 이 점에 있어서 가인의 족보는 범죄한 인간이 어느 정도로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그러나 셋에게로 이어지는 아담과 하와의 족보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기본 성격은 마찬가지로이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들의 족보는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코 인간의 선함과 신실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 까닭에 아담과 하와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노아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이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보편적인 부패와 타락(마음의 악함, 6:5; 폭력[포악함, violence], 6:11)은 사실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죄악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보여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인간 세상의 이러한 극심한 죄악상을 보다 못한 하나님은 마침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간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지상 세계에 큰 홍수가 나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과 짐승들을 물로써 멸하신다. 그러나 의롭고 경건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큼은 홍수 심판의 와중에서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다.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인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신다. 아울러 하나님은 그들과 우주적인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신다(9:1-17, 특히 9, 10, 12, 15-16절).

이상의 내용을 가진 홍수 이야기는 사실 세계 각 나라들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의 보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세계적인 대재난에 대한 각 민족의 기억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바벨론 지역의 홍수 설화인 '길가메쉬 서사시'(Gilgamesh Epic)가 창세기의 홍수 기사와 가장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서사시는 모두 12개의 토판(土板; Tablets)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길가메쉬'라는 이름을 가진 용맹스런 한 성주(城主)가 영생불사(永生不死)를 얻으러 다니는 이야기를 기록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제11토판에서야 비로소 나타나는데, 죽음을 극복하는 길을 찾으러 다니던 길가메쉬는 '바벨론의 노아'라고 알려진 우트나피슈티(Utnapishtim)를 만나 그가 어떻게 하여 홍수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하여 신들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길가메쉬가 이처럼 우트나피슈티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6-9장의 홍수 이야기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의 홍수 기사는 길가메쉬 서사시와 많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4. 민족 분산에 대한 두 가지 설명 (10-11장)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금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한다. 창세기 10장에 소개된 긴 민족들의 이름이 그것을 말해 준다. 이 민족 목록은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에게 주신 복과 깊은 관계가 있다. 9장 1절과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신 바가 있었다. 그리고 이 복은 사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복(1:28)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세기 10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복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창세기 10장은 여기저기에 흩어져 사는 많은 민족들이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민족들이 본래는 한 형제요 한 식구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은 동일한 사실을 매우 다른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른바 신학적인 해석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민족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창세기 11장 전반부는 바벨탑 이야기를 민족 분산의 현실과 관련시키면서, 지상에 존재하는 많은 언어들과 민족들이 사실은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겨났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창세기 11장 전반부의 이러한 결론은 이 본문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인간 범죄의 확대 재생산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사실은 마지막 이야기-임을 암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범죄 행위가 마침내는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의 높은 탑을 쌓기에 이르고(11:4), 그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8절과 9절에 반복되는 “흠으셨다”는 표현 주목)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11장 전반부의 이러한 시각은 민족 목록을 아무런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10장 본문과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그 까닭은 10장이 민족 목록에 대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이라면 11장 전반부는 이와는 정반대로 신학적이고 주관적인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이처럼 상반된 두 개의 설명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성경 독자들은 왜 민족 목록에 대해서 상이한 두 개의 설명을 읽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들의 목록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의 성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범죄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인 것이다. 즉 하나님의 역사 주권과 관련하여 민족 목록이 갖는 양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인 것이다.

민족 목록에 대한 이상의 상반된 접근은 다시금 그 범위를 좁혀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인 셈의 후예를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가 그러하다.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족보 중심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데라의 가족에 관한 27절 이하의 내용이 사실은 12장부터 이어지는 족장사(族長史, 구속사[또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를 예비하는 성격의 본문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람에게서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와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原歷史)를 연결지어주는 본문이라는 말이다. 이로써 우리는 원역사를 마감하는 성격의 본문인 11장이 그 전반부에서는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원역사와 족장사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